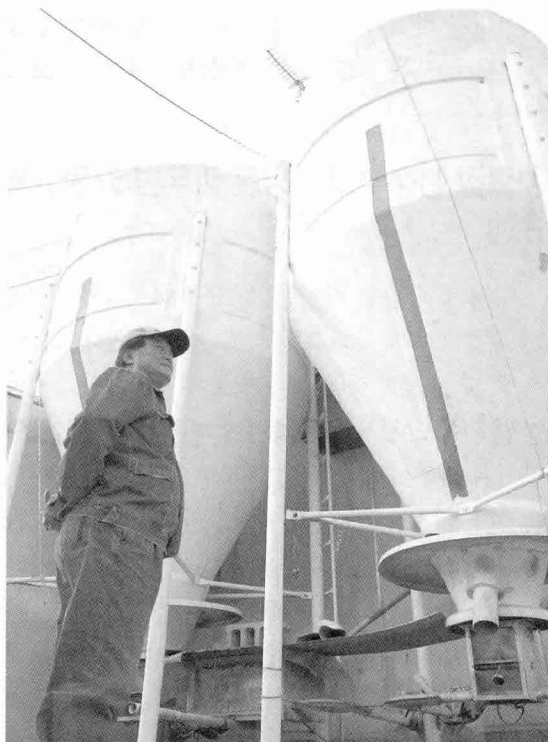


‘천정부지’ 사료값에 한숨짓는 ‘양돈’ 농가 “돼지도 농가도 굶어 죽으란 얘기죠”

취재 - 오유환



▲ 경기 안성에서 양돈 2,000마리를 기르고 있는 청학농장 오덕재 사장은 “지금은 사료가격 상승과 출하가격 하락으로 돼지가 돼지를 잡아먹는 꼴”이라며, “지금 사정 압박으로 인해서 인근 몇몇 농장 역시 폐업했다는 소리도 있고, 야반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요즘의 어려움을 말한다.

세계 곡물가격 파동으로 국내 사료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전국의 양돈농가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곡물수출국가의 작황부진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해 배합사료에 주로 사용되는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와 소맥 등이 2년여 만에 2~3배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2006년 말에 비해 40% 가량 상승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근근이 버티오던 양돈농가들은 사료가격 폭탄이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가격이 가뜩이나 취약한 축산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 안성시 태광농장. 최근 자동화 설비를 갖춘 3,0700두 규모의 축사 한쪽에서 돼지에게 줄 사료를 살펴보고 있던 농장주 김광용씨(50)는 “계속된 사료가격 인상에 이어 5월에도 사료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료가격이 비싼 것만이 사료 등 고급 사료구

간을 축소하고 사료회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준수해 급이하고, 사료허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사료가격이 치솟고 있어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양돈업 최대위기

김광용 사장은 20여년이 넘게 양돈을 해왔지만 지금 같은 위기를 처음이라며, 지난 1997년 11월 21일 터진 IMF와 5년 전 구제역 파동 때보다도 훨씬 더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990년 돼지 7마리를 사들이면서 양돈업에 뛰어든 김광용 사장은 모든 180두 규모의 번식전문 농장을 운영하다가 향후의 FTA 환경에서 규모를 키우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005년 비육농장을 임대하며 모든 300두 규모로 늘려 현재의 규모에 이르렀다.

태광농장은 원래 자돈을 전문생산하는 모든 180두 규모의 번식농장으로 PSY가 23두 이상일 정도로 양호한 생산성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2003년말부터 PMWS가 발생하여 10주령까지 사육하던 자돈육성사에서 폐사율이 10%에 이르고 비육농장을 임대하자마자 PMWS의 후유증으로 살모넬라와 PRDC 등이 발생하여 비육단계에서 위축·폐사율이 30~50%를 기록하면서 생산성 역시 MSY 18두 이상의 성적이 MSY 14두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져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김광용 사장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대 채 찬희 교수팀으로부터 면밀한 병리진단을 받아 PMWS의 원흉이 되는 PRRS 생독백신과 연구용 써코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을 2006년부터 시행한 결과, 자돈사의 폐사율을 1% 미만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으며 연간 수태율 95%, 모돈회전율을 2.45로 끌어올리며 PSY 25두, 10주령 평균체중은 32~32kg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수준의 성적

에 도달했다. 한편 U시설업체의 자문을 받아 비육농장의 육성사의 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살모넬라와 PRDC(복합호흡기질환)의 피해를 보면서 비육사에서의 피해는 저돈가기에 더욱 크나 큰 경영 손실로 다가 왔다.

이에 각 돈사에 설치된 극심히 오염된 수조를 전면 새 것으로 교체하고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백신의 접종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사료허실을 줄이고 섭취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1m의 대형급이기로 교체하고 돈방도 구획을 나눠 확장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갔다. 2006년도 초반 40%대까지 올라갔던 비육사 위축·폐사율이 20%, 10%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어 현재는 3%대로 틀어 잡으며 이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해 MSY 15.5두 수준의 생산성을 올리는 MSY 20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값 천정부지... 양돈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

하지만 김광용 사장은 올 초부터 생산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간 임대보증금 증액 및 시설개선비로 추가로 투자된 1억 2천여만원 외에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사료구입량의 증가와 더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배합사료값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말한다. 그간 누적되어온 적자에 요즘은 수익성마저 나빠지니 돼지를 출하해보야 하루하루 사료값을 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갓은 노력끝에 성적은 확실히 개선되어 양돈에 대한 자신은 생겼지만,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하루하루 사료를 대기도 힘겨워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양돈을 하고 있지만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제 경우, 지난해 kg 320원 하던 배합 사료가격이 지금은 kg당 450원 가량 합니다. 약 40%가량 오른 셈입니다. 이달의 경우 규격돈 마리당 사료비가 16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농장 운영비, 다른 모든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두당 생산비가 25만원은 들어가므로 시세(kg당 지육단가)가 적어도 3,300~3,400원 선은 되어야 하는데 요즘 2,800원 밖에 안 되니 돼지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3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비교적 성격이 양호한 저도 이러니 일반적인 농장의 경우는 말도 못할 겁니다.”



▲ 하루하루 돼지들에게 줄 사료를 대기도 급급하다. 요즘은 돼지를 출하해보야 사료값을 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양돈을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MSY 18두 규모의 농장도 위기

이처럼 지난 2006년 말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사료값이 올 3월까지 거의 4~50% 가까이 값이 인상됐지만 가축 시세는 예전만 못해 적자 경영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출하되는 산지가격이 21~22만원선이므로 동물약품값, 분뇨처리비, 건물 및 기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110kg 비육돈의 경우 두당 약 5만원 정도 적자인 셈이다. 지금상황에서는 돼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MSY 18두 수준의 태광농장의 생산성은 우리나라 상위 클래스 수준.

MSY 18두의 생산성은 지난해 양돈협회 등에서 FTA 목표치 잡은 우리나라 기준 생산성이지만 현재 MSY 18두 수준의 생산성적을 가진 농장마저도 채산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국내 평균 MSY가 14두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 대다수의 양돈농장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입의존도 높은 배합사료... 양돈농가들 더욱 궁지

사료값은 이미 사육농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양돈농가들은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는 한 상당수 농민들이 상반기 내에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배합사료 대신 볏짚 등 조사료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한우농가와와는 달리 전량 배합사료를 이용해야 하는 양돈농가들은 더욱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에서 돼지 2,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청학농장 오덕재 사장은 MSY 18두 이상의 성적을 내는 우수한 농장이지만 “지난 추석이후로는 매달 돼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오히려 ‘밀지는 장사’를 하다고 있다며, 양돈농가의 타들어가는 심정에 새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오덕재 사장은 “월 3천만원이던 사료값이 지금은 4천400만원으로 1천400만원이 더 들어간단다”며 “새끼 돼지를 6개월간 길러 출하하는 데 25만

원의 생산비가 드나 판매가는 21만~22만원대여서 결국 마리당 3만~4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냈다.

오덕재 사장은 지금은 사료 가격 상승과 출하가격 하락으로 “돼지가 돼지를 잡아먹는 꼴”이라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자금 사정 압박을 인해서 인근 몇몇 농장 역시 폐업했다는 소리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야반도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라고 말한다.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새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긴급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덕재 사장은 “정부에서 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나 이미 파산 직전에 몰린 농가들이 그 이자나 제대로 갚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사료안정기금, 긴급수매 등 대책 시급

곡물가격 인상에서 비롯된 사료가격 상승은 지난 1월 7% 오른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10%나 뛰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곡물가 상승과 환율인상으로 5월과 7월에도 각각 톤당 2만원은 올라갈 거란다. 산지 시세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돈농가에게는 생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사료값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양돈농가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데다 의욕 저하에 따른 사양관리 부실과



▲ 양돈농가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데다 가축 질병발생 등 2차 피해도 예상된다.

적기에 투약이 되지않음으로 인하여 가축 질병발생 등 2차 피해도 예상된다. 더욱이 국제곡물가 상승이 장기화 될 경우 양돈농가의 도미노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돼지사료 가격은 2006년 말에 비해 40% 올랐다. 이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농가들이 출하량을 늘리면서 돼지 가격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값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비에 대한 은행이자와 전기세, 분뇨처리비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협회는 “수입축산물이 한 번 점령한 시장에서 국내산이 예전의 제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축산사료 생산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하는 한편 배합사료의 안정기금 조성 관계법령 제정과 이를 운용할 ‘사료안정기금’ 설립과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수매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